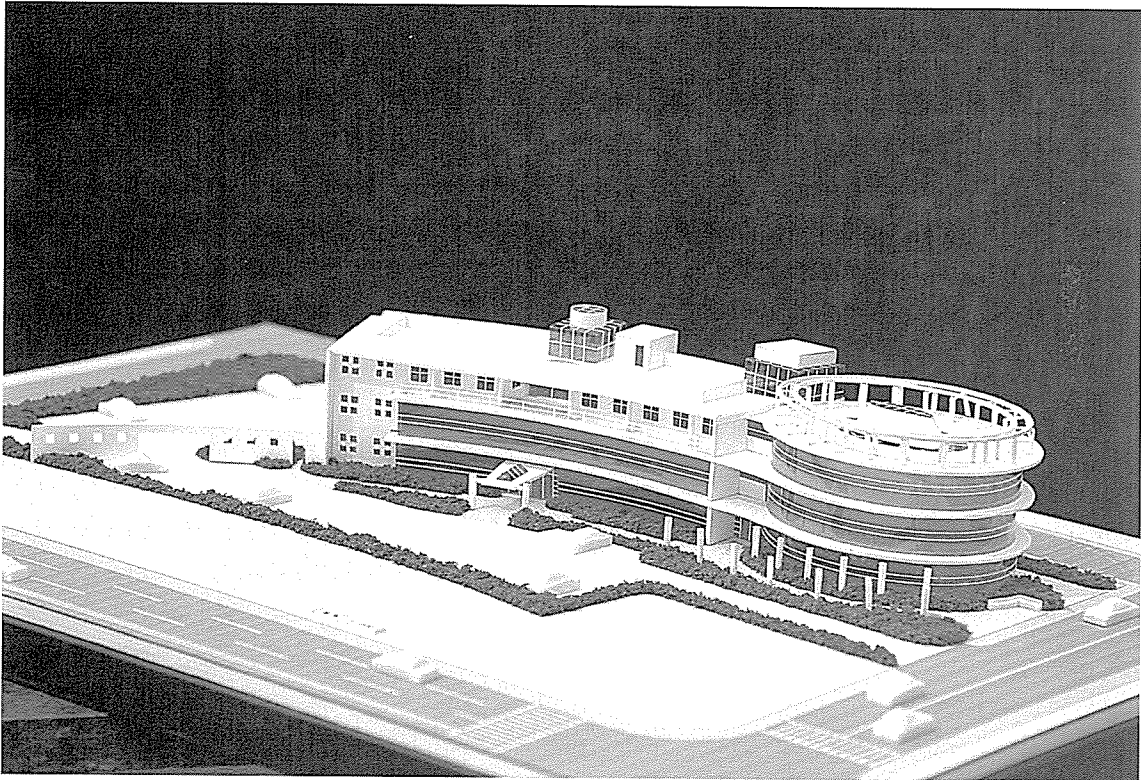


밀양 보건소 · 노인복지 회관 Miryang City Health Center, Welfare Center

김성곤 / 성 ·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ung-Gon



들어가기 전에

국내에서 치루어지는 현상설계 공모는 청사진으로 된 간략한 도면 제출 정도로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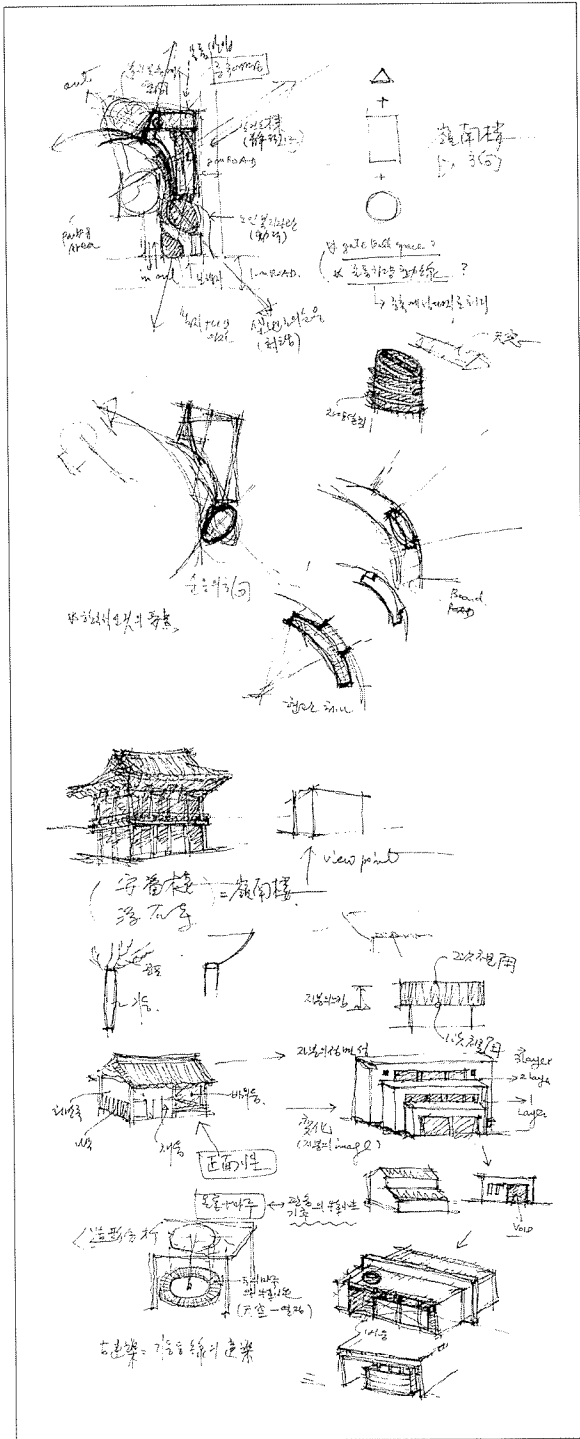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모두가 전문가일 것이고, 오랜 세월 실무에서 계획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있는 위원들이라면 요란한 걸치레보다는 개념설정이 충실한 도면만 보면 창의적인 작품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테고, 무엇보다도 정작 작품을 구상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야 할텐데 그보다는 첨단 메카니즘 등을 이용한 기교스러운 패널제작과 다 읽어 보지도 못 할 각종

인쇄물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으니 이 안타까움은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작품제작 경비를 적게 들게하면 뒷잡음도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건축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차후 당선작에 한해 최대한 멋을 부린 패널을 제출하려고 한다면 당선된 사람이 누가 하지 않겠는가?

더 문제는 주로 국가 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P.Q라는 제도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자 선정 수단이라면 몰라도 창의성이 필요한 건축설계에 바람직한 제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건축사를 여러 평가점수라는 잣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대표자의 재산현황 상태가 건축 창작 활동에 왜 필요한지? 등) 건축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

건축설계란 결국 설계하는 건축가 개인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말이다. 남녀노소 빈자든 부자든 경험이 많은 적든 모든 실력있는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하고, 그것 또한 작품으로 평가되어야 건축은 발전할 것이다. 그동안 건축사지 등으로 뜻있는 회원들의 많은 개선내용들이 지적되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 같다.

세대는 다르지만, 화가 이중섭님은 부자이고 붓이 좋아서 혼을 빼어 넣은 작품을 남겼는가?

들어가면서

이 프로젝트는 현상설계에서 비록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건립예정지인 밀양은 내가 일하며 살고 있는 부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자주 영남루를 찾아 보곤하여 애착이 가는 고장이다. 처음 현상설계 참여 여부를 놓고 스태프와 의논한 결과, 중소도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지역연고성 등의 한계에 대한 염려가 많았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뒤 자주 밀양을 찾아서 자료 수집도 하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스케치하고, 작업에만 매달렸다.

현상설계의 결과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미흡한 글을 써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처음 현장조사부터 개념설정, 계획과 형태 등 스케치를 하나하나 직접 관여 하였기 때문에 지식과 같은 애착이 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작업도 마찬가지지만) 둔재 임의 능력과 평가는 그 뒤로 하고...

정(靜)과 동(動), 직선(直線)과 곡선(曲線)

밀양의 역사적 주요 건축물로는 우리나라 3대 누각중 하나인 영남루가 있고, 표충사가 있으며, 인물로는 사명대사를 생각나게 하는 충효의 고장이며 문화예술 행사로는 밀양 아랑제와 백중놀이가 있다.

영남루에 올라가서 도시를 굽어보면 한눈에 밀양을 엿볼 수 있다. 평활한 수평선으로 펼쳐진 시가지와 들판사이 옷자락을 끼고 잔잔하게 유유히 흐르는 남천강의 소리 없는 움직임.

곡선형의 남천강을 호수인양 꺼안고 침묵하면서도 당당하게 둘러쳐진 높고낮은 산들. 정말 밀양의 백미(百媚)이다. 왜 영남루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황홀함이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개념들을 정리하여 나갔다.

대지(垓地)읽기

건립예정 대지의 형상은 12m 전면 도로쪽으로 짧게 접하고 깊이가 긴 직사각형 대지로서 다른 연결도로가 없으며 트인곳은 도로쪽 뿐이며, 3면은 인접지에 감싸안긴 막

힌 공간이었고, 건물의 인지성과 상징성 등의 표현에 까다로운 대지조건이었다.

디자인 접근

평면과 공간·형태 계획의 접근은 정적인 개념의 표현으로 보건소 동은 박스형으로, 동적인 개념으로 노인 복지 회관동은 타원형으로 설정하여 두동의 Mass를 나누고 연결시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게끔 정리하였다.

도시 읽기에서 처음부터 화두(話頭)였던 물결의 흐름과 같은 자연스러움의 건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좁고 긴 대지의 여건상 일자형의 지루한 배치를 피하고 진입방향으로 시각(斜角)을 이루게 함은 이의 시각에 건축이 입체적 형태와 공간으로 변하며 다가오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

노인이 주로 거거하는 노인복지 회관도 타원형 중앙에 중정을 두어 천장을 통하여 실내 구석구석으로 밝은 빛을 도입하고 보건소 동은 3층 천정을 열어 비와 바람을 유입하게끔 계획하였다.

일상의 고민들

매번 주어진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면서 느끼는 것은 작업 후에는 항상 두려움으로 고민한다는 것이다. 두렵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상설계의 발주자나 심사위원이나 작품을 제출한 건축사나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심의하고, 페어플레이를 한다면 비록 당선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종이 한장 차이로 돌리고, 열심히 일했던 시간만은 값진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깔끔한 풍토의 현상설계 경기가 되어서 우리 건축문화의 자랑스러운 한 장르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

